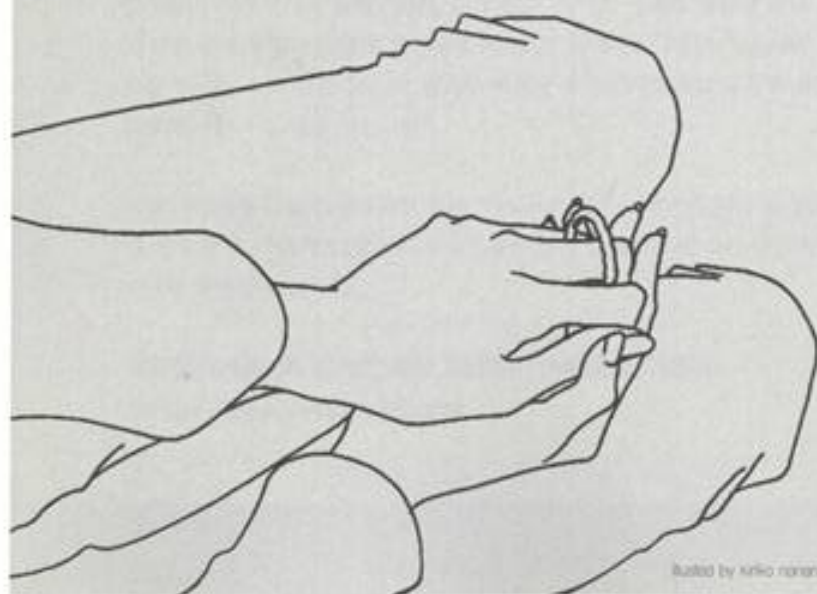


2010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

yeoyeon.cyworld.com

2010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Illustrated by Kiko nonnan



Illustrated by Kiko nonnan

굿바이, 거짓평화

2010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

yeoyeon.cyworld.com 2010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2010

굿바이, 거짓평화
2010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



CONTENTS

자치규약 이야기

- 02 • 지금은 성평등 자치규약이 필요한 순간!
- 04 •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 07 •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 09 • 2차 가해 질고 넘어가기
- 10 • 스미스씨 강도맞다
- 12 • 가해자 중심주의에서 피해생존자 중심주의로
- 14 • 학내 사건 해결의 구체적인 절차

공동체 이야기

- 15 • 술 안먹는 사람 술래 - 교육대 이야기
- 16 • 생과대 이야기
- 17 • 나를 붙잡아 주었던 대학 내 자치규약 - 생명대 이야기
- 18 • 아쉬운 공대남 이야기 - 공대 이야기 I
- 19 • 여자 글씨, 그게 먹는 건가요? - 공대 이야기 II
- 20 • 자치와 여성주의 - 사회대 이야기
- 21 • 선배되기 학교 - 행정학과 학생회 이야기
- 22 • 과/반 공동체에서의 페미니즘 - 문과대 자치규약 이야기 I
- 26 • 문과대 공동체를 위한 자치규약 초안 - 문과대 자치규약 이야기 II
- 28 • 자치규약 제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난점 벗어나기! - 문과대 자치규약 이야기 III
- 30 • 성폭력 피해 대처법
- 32 • 여연자연 소개

지금은 성평등 자치규약이 필요한 순간!

공동체 각 자치단위에서 1월과 2월을 보내며 가장 많이 되뇌고 고집
어내었던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10년 전, 연세대학교에 성평등 자
치규약이 제정되고, 세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대내 사회 및 학내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각 자치단위 공동체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0년 올해 초
에도 어렵게 학내외가 새로운 학내구성원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성평등 자치규약 이야기로 새롭게 말문을 터는 자리
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솔직히 말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성원
들 간에 소통하고 서로를 긍정한다는 것은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사람들이 오가고, 한데 모여 어울리다보면, 부대끼는
지점들이 일상 곳곳에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뭐라고 딱 고집을
수는 없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일 때가 종종 있
습니다.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할 수 있
는 말과 없는 말이 걸리는 건 또 어쩔가요. 이왕지사 이렇게 된 것
그냥 이대로도 편하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만연하기까지 하죠. 한번
받아쳐 봅시다. "과연 누구에게 존하고, 누구에게 당연한 건가요?"

이거 도대체 왜하나 몰라

술 먹고 게임하는 빈약한 놀이문화는 밤늦은 뒷풀이 자리에 남을 수
없는 여학생을 배제할 뿐 아니라, 그러한 놀이문화가 불편한 사람에
게는 아랑곳없이 적용할 태면 적용해봐, 라는 식이죠. 이런 자리에서
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여자라면 이래야지, 남자라면 저래야지
하는 상역할규범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뱉습니다. 게다가 여학생
에 대한 일상적인 대상화와 희화화가 일어나고,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이성적정체성을 차별하는 호모포비아 발언이나 행위가 벌어
지기도 합니다. 저 쪽 테이블에선 FM을 시키고 있네요, 소속감을 확

인하는 획일적인 통과의례이자 군사문화가 남아있는 관계맺음의 방식
이다. 라는 수없는 문제제기에도 여전히 시키는 사람은 있고, 한 술 더
떠 성적대상화의 소지가 다분한 AM을 시키거나 재현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건가보다 생각했던 일들
을 차근차근 뜯어보면 성별/학번/나이권력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공동체 문화는 부당한 일을 당연한 것처럼 위장합
니다. 누군가에게 유리하고 누군가를 배제하도록 만들어진 위계질서
와 가치체계란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절대화합니
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문화란 남성, 이성애자, 비장애인 주체의
경험과 시각으로 구성된 명면적인 문화라는 것이겠지요.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
면 힘이 들면서도 호기심이 생기는 이중적인 감정이 듭니다. 저마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흔들리고 깨지고 해됩니다. 지금의 공동체
는 이러한 인간적인 욕구들과 감정들을 나누고, 정말 자기의 목소리
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수직적인 위계질
서에서 비롯되는 권력관계 하에서는 누군가가 말할 때 누군가는 침
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와 사회 내에서 남성중심성, 이성애중
심성, 비장애인중심성과 같은 '중심'이 존재하고, 여타의 '나머지'를 주
변화 하는 권력 구도가 존재할 때, 누군가는 가시화되지 못합니다. 결
국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제기가 함의하
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깨트려내는 것이 됩니다.

나와 너, 다들 수밖에 없잖아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관계 맺는 양상을 총체적으로 가리켜 공동체
문화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문
화가 무엇인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입니다. 다양한 개인들의 정체성에 따라
관점도 다르고, 공동체에 기대되고 요구되는 자점 역시 다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지점들에서 개인들이 얹히고 이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국면은 입체적이고 상대적이어야 합니다. 주체들
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입장을 반영할 수 있고, 동등하게 참
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너는 다르다는 말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
해야 합니다. 다들 상관하지 않은데 왜 너는 불편함을 느끼는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데 왜 너는 그렇지 않은지를 묻고 비난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정체성과 경험을 '일반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상정하고, 손쉽게 환원시켜 놓은 후에 너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이 흘려온 맥락에 관심조차 가지
지 않으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 일들

과 아동, 정상과 비정상 등을 가르는 획일화된 기준을 답습하지 않는
것. 이런 고민들을 해 나가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관계맺음이 아니라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관계맺음을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은 이러한 고민들의 결과
로 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각 자치단위 공동체 내에서 다시금 고민
들을 촉발시키고 다양한 관계맺음으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은 우리의 공동체에 만연
한 문제 지점들에 이름을 붙여 문제임을 드러냄으로써, 가부장적인
대학 내 문화에 포괄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것은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이 평등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현재의 문화를 비판하고 대안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이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공동
체 내에서 생겨나는 고민을 이야기하는 소통이자 과정으로서 존재할
때 의미를 지닙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을 토대로 공동체 내에서 토론하고 나름의 자치규약
을 제정하면서 문화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다
른 경험과 다른 사고방식을 지워버리지 않으며, 서로를 억압하거나
목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권위와 기록권에
몰리지 않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인식을 함께 만들어나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때늦었지만 정해져 있는 것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진
듯이 보이는 사람이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 공동체에서 구
성원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서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공동체가 개인의 전부는 아니며, 모든 답을 내려주지도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공동체란 더욱더 다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양함이 동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
니다. 기존 공동체를 유지하고 답습하는 것에 차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완결되지 않은 채로 통로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내
가 참여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
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그 공동체의 의미가 됩니다. 공
동체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
아가는 사람들뿐입니다. 각 공동체마다 우리는 당신을 만나기 위하여
이만큼 고민했다는 흔적을 나이트처럼 쌓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그
러지 않고서 그 의미를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에서 그 공

동체에 관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미를 만들어가야 하
는 것 아닐까요?

신입생들이 처음 만나는 대학문화와 공동체문화를 고민한다는 것은
너무나 멀고도 험거운 일 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동체에 관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작지만 확고한 움직임들로서만 가능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믿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움
직임들을 만들어갑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입술이 먼저 움직여야만
하는 것 처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를 맺기 위하여 선택
하는 단어 하나, 공감 하나 하나를 짚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겠지요.
동시에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일들 하나 하나를 깨트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당연하지 않았고, 당연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때로는 참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당연한지, 그렇지
않은 지란 우리 바깥의 초시공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다만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 쏟아 붓는 개개인의 애정과 노력일 겁
니다. 성평등 자치규약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속해있었던 바로
그 공동체, 내가 관계 맺어 왔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안에서 때로는
벽에 부딪치고 때로는 통새로 비어져 나오는 가능성들과 마주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쌓아왔던
경험들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또 한 번의 나와 너의 새로운 만남의
기로를 타진하는 일이겠지요. 목, 토독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면 누
군가로부터 정말로 답장이 올 거예요! 그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목, 토독 신호를 보냅니다. 같이 하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실
천하고 참여하는 사람 안에서 이 모든 이야기와 의미가 되살아날 테
니까요. ●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새터 反성폭력 내규 개정안



1. 목적

대학 사회는 기존의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가부장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성별 권력관계, 이성애중심주의, 권위주의 등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사람들 간의 관계맺음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이는 대학 공동체에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해내고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이런 남성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찰은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 이는 새터, 대동계, 농활, 연고제 등 과/반/동아리의 활동과 생활 반경 안에서 수많은 성폭력을 양산해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성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기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성폭력이다. 따라서 본 자치규약은 성평등을 위한 실천방안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두었다.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을 해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평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 해결

2-1. 성폭력의 개념

광의의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으로 알려진 성적인 신체접촉 및 언어폭력 뿐 아니라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상황의 조성, 특정 성의 취약한 부분을 노린 폭력까지 포함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남성중심적인 일상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맞닿아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은 사건 발생 시의 상황과 개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갖게 되는 의미, 그리고 사건 해결의 방향에 따라 다른 명명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공동체 내에서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지적하는 성차별이나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성적 언행이나 성차별 유발 등으로 노동권, 교육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법적으로 다루는 성희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명명은 성폭력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해결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피해 상황,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각이다. 본 자치규약에서

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을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체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을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본다면 아래와 같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요구하는 언어 및 행위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
- 놀이 자리에서 특정 성을 대상화하거나 배제하는 것

예 •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 술자리에서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는 언어 및 행위

예 • 여성의 옷차림이나 늦은 귀가가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경우

- 특정 성의 공간을 침해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

예 • 다른 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육체적, 언어적 표현
- 예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행위 묘사
- 음담패설이나 왜곡된 성의식에 기반한 성적 농담 및 육설
-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 특정 성에게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예 • 공동의 공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구,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
-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성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특정 성에게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 앉아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언행
- 예 •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일의 분업이 강요되는 경우

- 성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표현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예 • FM 및 각종 게임의 예로틱 버전을 요구하는 경우

- 남학생들을 왜곡된 여성의 모습으로 여장하게 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심사하는 경우

○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폐시키는 경우
- 가해자와의 친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유보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경우

2-2. 이성애 중심주의

이성애중심주의란 이성애를 유일한 성정체성으로 간주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성애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사고 및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성애중심주의는 동성애혐오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기반이 된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가하는 폭력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규약을 정한다. 각 학내 공동체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성애중심적 사고를 되돌아보고, 성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성애중심주의 및 동성애혐오로 인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동성애 혐오에 기반하여 욕설 및 조롱이 담긴 발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이성애를 유일한 성적지향으로 간주하여 이성애중심적 커물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 새터 공연자리 등의 놀이자리에서 성소수자를 희화화하지 않는다.

2-3. 학번권력과 나이권력

여전히 공동체 내부에서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번 및 나이 권력, 성별 권력을 통해 성폭력적인 놀이문화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학번 권력 및 나이 권력은 공동체 내부의 수평적인 관계 맺음을 물론이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번 및 나이와 무관하게 본 자치규약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 규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제기된 경우 학번이나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이에 폭력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3. 적용 대상

본 자치규약은 학내의 과/반 학생회, 동아리, 학회, 소모임, 동문회 등 모든 자치 단위 공동체의 구성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4. 의무

- 학내 모든 공동체에서는 각종 행사 및 모임 자리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새터, 현장 활동, 대동제 등 학내 공동체 행사를 주최하는 학

생회는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교양을 이수해야 하고,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사건 접수 통로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새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자치규약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 자치규약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제작한 자료집과 포스터를 배포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현장 활동과 대동제 기간 2주전부터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본 자치규약을 소속 단위의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5. 사건의 처리

- 학내에서 일어난 모든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성폭력 학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식적 처리나 비공식적 처리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한 경우에도 각 학생회는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 피해자가 학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회는 성폭력 상담실과 총학생회의 자문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 제 정: 2000. 2. 9 - 2차 개정: 2006. 1. 21
- 1차 개정: 2003. 1. 28 - 3차 개정: 2006. 9. 12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출처: <http://blog.yaho.com/2006/05/10/10-3>

성폭력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성폭력이냐, 성희롱으로 말을 정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폭력과 성희롱의 개념을 '심각하냐 덜 심각하냐'의 차이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때 말하는 '심각의 정도'는 피해생존자가 그 상황 혹은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느냐가 아닌 가해자가 얼마나 폭력적인 행동을 했느냐로 판단된다는 것인데요, '광의의 성폭력' 2이란 개념으로 학내에서 반성폭력 운동이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왔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 것은 학내와 사회 내에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각본'이 여전히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각본'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쉽게 상상하는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일종의 상황설정과 이미지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갑작스럽고 온 나쁜 일, 일대일로 대응되는 남성이해자와 여성피해자, 흥기가 등장하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상황,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행위, 피해생존자의 순결과 반항, 성기결함 등의 것들이 성폭력 각본을 구성합니다. 물론 저 각본에 딱 들어맞는 성폭력 사건은 분명 다수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반성폭력 운동을 해 나가야겠죠. 하지만 저런 성폭력 각본에 들어맞지 않는 성폭력 사건들도 분명 존재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성폭력

각본에 갇히는 순간 몇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째, 사람들은 성폭력 각본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건은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비가시화시켜 버립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에 나온 예를 들며 설명해봅시다. 음담패설이나 왜곡된 성의식에 기반한 성적 농담 및 욕설,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 인사 등 '언어성폭력'의 경우 분명 물리적 폭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생존자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성폭력이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재는 가만히 듣는데 왜 너만 예민하게 구냐'라는 등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성폭력이 그만큼 아주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발언이나 욕설을 들었을 때 그것을 폭력으로 인지합니다. 아주 불쾌하고 불편하고 분노하게 되지요. 그 특정한 욕설이나 발언이 성적인 차이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성' 폭력인 것이지요.

둘째,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각본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말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또한 피해생존자는 지켜줘야 할 피해생존자와 그렇지 않아도 될 피해생존자로 이분화됩니다. 데이트 성폭력의 예를 들어볼까요? 흔히 남자가 여자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요. 남성애인이 '내 여자는 내가 지켜야지'라고 말하는 것이나 '집에 가는 길이 위험하니 오빠가 보호해줄게' 등의 말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말입니다. 어떤 위험상황을 대비해 '보호'해주는 의도는 언뜻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의도와 상관없이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보호해주는 사람과 보호받는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위계적 권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계적 권력관계 속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또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줄 상대가 원하는 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수동적이며 남성의 욕망에 의한, 대상으로서만 구성되게 됩니다. 여성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능동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성적대상화 될 위험에 노출되는가 하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문란한 여성으로 치부되어 버리기도 하지요. 몇 내고 싶어 미니 스커트를 입었는데 불쾌한 시선이 쏠릴 때, 불편함을 항의했더니 '너도 이런 거 원해서 입고 온 거 아니었어?' 따위의 말을

들게 되는 상황이 예일 수 있겠지요. 한편, 섹슈얼리티를 능동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싫다고 말하지 않았잖아, 내가 저항하지 않았잖아”라는 말들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결국 가해자 중심적 성폭력 각본 속에서 여성은 성폭력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남성적 시선에 맞추어, ‘혹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성폭력적인 위협이 있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검열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가해자 중심의 성폭력 각본 하에서 피해생존자의 경험은, 각본에 끼워 맞춰지지 않으면 통째로 부정당하기 십상이므로, 각본에 끼워맞춰지기 위해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기도 어렵고 앞으로의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꾸려가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여태껏 막연하게나마 ‘이런 거 아니겠어?’ 하며 생각한 것들이 얼마나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각본 속에 갇혀있던 것인지 깨닫고, 성폭력 각본을 깨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면 사실, 금세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 그렇다면 대체 성폭력이라는 것이 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이겠지요. 그러나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말조차도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섹스를 하자고 합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싫어”라고 말하면 그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일까요? 실제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하나의 원인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가 명확한 하나의 인과관계로만 해석될 수 없는 복잡한 권력관계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좀 고전입니다만 성폭력이 정조의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엇그제임을 생각하며 춘향전을 떠올려봅시다. 변사또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 하지요, 춘향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진 고문을 당하지요, 춘향은 수청을 거부했으니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일까요? 춘향이 만약 모진 고문이 너무나 두려워서 수청을 들겠다고 했다고 칩시다. 어쨌든 그러겠다고 말했으니 그것 역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당초 성춘향이 수청을 들라고 요구받은 상황부터가, 변사또가 당당하게 성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할 수 있던 것 자체가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황인 것입니다.

위계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곳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쉽게 침해됩니다. 성폭력의 문제가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데?’ 의

문제가 아니라 맥락을 살피고 권력구도를 살펴봐야 하는 문제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위계적 권력구도가 명백히 존재하는 이 사회 - 좀 거칠게 그렇지만 그나마 가장 쉽게, 언어화해서 말하자면, ‘젊은 비장애 이성애자 남성’만이 ‘정상’ 인간으로 여겨지고, 그 ‘정상’ 인간만이 권력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부장적 사회 - 속에서 많은 경우에 소위 ‘정상’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권리의 문제에서 약자의 자리에 놓여집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아예 성적인 존재로 생각조차 되지 않기도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권력 구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데이트 성폭력, 아동 성폭력, 노인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연예인에 대한 공공연한 성적 발언들과 같은 성폭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물론 위에 나열한 것들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절대 같은 성폭력으로 묶일 수는 없겠지만 위와 같은 성폭력 사례에서 피해생존자는, 위계적 권력구도와 권리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성찰, 성찰이란 말이 너무 어렵다면 약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의 목표는 성폭력의 ‘객관적 기준’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찰/고민을 함으로써 기존의 위계적 권력구도 속에서 가려지고 왜곡되어 억압된 개개인 고유의 감수성을 존중해주려는 것입니다. 억압하지 않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폭력 각본을 뺄 수 있고 성폭력을 바로 볼 수 있으며 피해생존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

- 1 성희롱은 광의의 성폭력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공동체 내구체적으로는 직장입니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적인 차별이나 인종으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를 법적으로 다루기 위해 생긴 개념입니다.
- 2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성평등 자치규약 내)
- 3 “그게 무슨 성폭력이야?” 하면서 일단 일로 치부해버리다가 성폭력으로서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 4 물론 피해생존자가 꼭 여성인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여성이 피해생존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폭력 각본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피해생존자의 숫자를 살펴 보았을 때 여성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며 해당 부분은 피해생존자가 여성일 때 이중적으로 억압되는 부분이므로 여성을 가정하고 서술해 나가겠습니다.
- 5 꼭 생물학적 남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을 갖춘 남성임을 들은 군대를 한역으로 다녀왔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지요. 이 남성으로서 무리 인정 되는 맥락도 고려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2차 가해 짚고 넘어가기

성폭력 사건은 그 사건의 경험 자체만으로도, 피해생존자의 삶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경험은 사건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학에서는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생존자가 정신적/사회적으로 재차 상처 입는 과정을 2차 피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2차 피해를 성폭력사건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적용시켜 다시 설명하자면, 성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생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2차 피해¹⁾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2차 가해라고 합니다. 2차 가해의 예로는 피해생존자의 평소 행동에 관한 비난, 사건의 내용을 그쳐 가심으로 치부하여 사건 경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는 행위, 피해생존자의 사건 이후 행동을 언급하는 행위, 사건이나 가해자의 호칭을 지속적으로 회화화 하는 행위(연쇄성폭행범의 이름을 ‘발바리’라고 칭하는 경우), 사건을 피해생존자의 통제 범위 너머로 계속 유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가해는 왜 벌어지는 걸까요? 성폭력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다르게 유난히 ‘피해생존자’가 주목받습니다. 피해생존자의 이전 행동, 피해생존자의 사건 당시의 행동 등 많은 부분이 피해생존자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이것은 사건에 있어서 피해생존자의 부각과 더불어 가해자를 사라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피해생존자가 부각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 사회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특정한 시각, 즉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는 성별권력관계에 의거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해자는 원래는 피해생존자를 ‘보호’해 준다고 상정되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라는 것은 피해생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모습을 했을 때, 즉 성별권력관계를 충실히 따랐을 때에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성별권력관계를 충실히 따르지 않는 피해생존자에게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갖가지 신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처리 과정에 있어서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2차 가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생존자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꺼려지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여타 범죄사건과 다릅니다.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경험이 ‘성폭력’이 맞는지 끊임없이 본인에게 되물습니다. 설명 어렵게 문제제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생존자에게 왜곡된 통념을 적용하여 더 이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 피해생존자에게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 이 사회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행위들은 피해생존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제대로 된 사건 처리를 방해합니다. 게다가 이는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도 결코 쉽게 보고 넘어갈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Illustration by ALDERY KAWASAKI

2차 가해는 피해생존자가 이러한 성별권력관계를 인정하도록 하여 피해생존자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가해자

가 잘못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끼는 등 심리적 외상을 가중시켜 피해생존자의 치유를 방해합니다. 이는 피해생존자가 1차, 2차 피해로 인해 반사회적 혹은 비사회적 행위를 하게 되는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내에서 이것은 교육권, 특히 여학생 교육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다닐 권리, 성폭력 사건을 성별권력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권리 등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누려야 할 미땅한 권리들 중의 일부인 것입니다. 피해생존자들이 2차 가해로 인해 성폭력 사건 그 자체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1 성폭력, 법정에 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362p, 2007.

스미스씨 강도맞다



Illustrated by 7월

스미스씨는 며칠 전 밤에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나 칼로 위협당하고 돈을 빼앗겼습니다.



검 사 강도와 싸우고 저항하셨습니까?

스미스 아니오

검 사 소리를 질렀습니까?

스미스 아니오

검 사 당신은 도움을 얻기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셨군요.

스미스 그 사람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검 사 강도를 만나기 전 당신은 그날 어디에서 저녁을 보냈죠?

스미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검 사 술을 마신 상태라구요? 그러면 술값은 어떻게 지불했죠?

스미스 지갑 안에 있던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검 사 지갑 안에는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었습니까?

스미스 50만원 정도였습니다.

검 사 꽤 많은 돈이군요. 그렇다면 술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갑에 있던 그 돈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스미스 글썽요, 한 두 시간 동안 지갑을 밖에 내놓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질문을 하신거죠?

검 사 당신은 많은 현금이 든 지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니고 술값 역시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돈이 많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군요.

스미스 들어보세요, 내가 원했다면...



검 사 그건 그렇고 노상강도에게 잡혀있던 게 몇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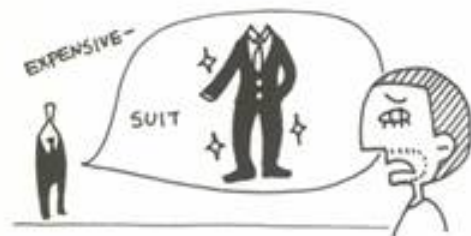
스미스 밤 11 시쯤이었습니다.

검 사 밤 11시에 길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스미스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검 사 그냥 걷고 있었다구요? 취한 상태로 밤 늦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본인도 알고 있었을텐데, 당신은 자신이 노상강도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스미스 노상강도를 당할 것이라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습니다.



검 사 사건 당시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스미스 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 사 값비싼 옷을 입고있었군요.

스미스 그렇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난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검 사 정리하자면, 당신은 밤 늦게 길거리를 걸어가는 중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술집에서 나는 돈이 많다고 사람들에게 알려놓은 상황에서 내 돈을 빼앗아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도록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검 사 다른 사람에 대해 더 잘 알지 못한다면, 저는 당신이 노상강도를 당한 이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유발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스미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밤길을 걷다가 강도에게 돈을 빼앗긴 사람에게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지 않지요?

아무도 강도를 당한 상황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성폭력사건으로 바뀐다면, 피해자를 추궁하는 위와 같은 흐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해자의 상황과 상태를 이야기하며 가해자를 옹호합니다. 짧은 치마를 입었느냐, 술은 왜 취해 있었느냐, 성폭력을 당할 예상은 못했느냐 등의 질문을 던지며 성폭력사건을 피해자가 유발한 것처럼 말합니다. ●

가해자 중심주의에서 피해생존자 중심주의로

바람직한 성폭력사건의 해결은 피해생존자중심주의에 기반한 해결입니다. 피해생존자의 경험에 기반하여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며, 피해생존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가해자 징계 이후에도 피해생존자의 치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공동체에서도 성폭력사건을 충분한 성찰을 하고 피해생존자가 느낀 고민을 충분히 공감하여 더 이상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성폭력사건의 해결은 피해생존자중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생존자중심적으로 성폭력을 바라보는 경우보다 가해자중심적으로 성폭력을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경우 피해생존자의 경험이 무시됩니다. 이를테면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경우, 가해자는 실수로 저지른 일이다, 작은 스킨십이었는데 상대방이 오해한 것 같다, 친근함을 표현한 것이었고 그럴 의도는 없었다-와 같은 말을 하며 '자신은 성폭력을 저지른 의도가 없었으며 예민한 피해생존자가 오해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사건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암, 저 정도 일을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민한 행동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생존자는 사건을 실수, 작은 스킨십, 친근감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위는 피해생존자가 성적인 폭력(gender based violence)으로 느껴서 문제제기하였지만, 사건은 가해자의 진술을 기준으로 재구성되고 사건은 피해생존자의 예민한 대응으로 치환됩니다. 이러한 피해생존자의 경험이 드러나지 않은 채, 가해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끼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생존자 사이의 '오해'를 풀기 위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사건이 진정으로 해결되려면 일단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피해생존자의 시각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성폭력 전반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이 재발하겠지요.

가해자중심적인 성폭력 서술은 법에서도 드러납니다. 현행법에서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와 결합한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되며 그 외의 성폭력은 모두 강제추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성기결합이 과연 피해생존자가 느낀 폭력성에 의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기결합이라는 기준은 철저히 가해자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인 기준입니다. 가해자에 의해 성기결합이 일어난 경우 '부녀자의 정조'가 침해되고 '가문의 혈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성기결합은 부계혈통에 대한 도전이 되며 가부장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성폭력 관련법은 폭력적 상황에 겪은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생존자가 속한 가문이 겪은 혈통침해에 관한 법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 피해생존자의 경험은 없습니다. 성폭력의 구분 기준은 가해자중심적이며 그 기준이 정해진 맥락

역시 피해생존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피해생존자에게 같은 수준의 폭력으로 인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자중심적인 분류에 의해 강제추행에 포함되는 수많은 피해생존자의 경험은 하나의 단일한 경험으로 환원되고 맙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범주의 경험이 있는데 말입니다.

성폭력사건이 가해자의 언어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생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성폭력사건을 접한 사람들 중 몇몇은 '그러게 왜 야한 옷을 입고 다녔어!', '왜 늦게까지 돌아서 술을 마셨어!', '왜 밤늦게 돌아다녔어!', '왜 술에 취해 있었어!' 등등 익숙하고 전형적인 비난을 피해생존자에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은 여성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남성은 성욕을 참지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왜곡된 성폭력 각본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비난은 '성욕을 참지 못한 가해자는 나쁘지만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한 피해생존자가 더 나쁘다'는 식으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가해자이지만 나쁜 사람은 피해생존자가 되기 때문에 '나쁜 피해생존자'는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을 두려워하며 성폭력사건을 공론화하지 못합니다.

설령 피해생존자가 성폭력사건을 문제제기하고 공론화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생존자는 주체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가해자중심주의가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생존자를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성폭력사건의 모든 관심은 피해생존자에게 가해진 폭력에 집중되기 때문에 피해생존자가 사건의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이 가해자중심적으로 풀어내는 한 피해생존자는 사건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됩니다. 사건이 공론화가 되는 동시에 사건에 관련된 가십거리만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십만 접한 제 3자는 사건 해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마구 쏟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되고 제 3자는 일벌백제를 해야 한다고 성토향니다. 제 3자의 거센 목소리는 가해자와 피해생존자 사이에서 벌어져야 하는 논의를 가해자와 제 3자의 갑론을박으로 바꿔버립니다. 피해생존자는 제 3자가 멋대로 상정한 '나약하고 수동적인 피해생존자'로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사건은 제 3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사건의 마무리에서는 가해자의 처벌만이 존재하고 피해생존자의 치유- 피해생존자 말하기 모임'이나

상담-는 논의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중심주의는 성폭력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피해생존자를 배제하고 비가시화합니다.

성폭력사건을 가해자중심주의적 시선으로 풀어나가는 한, 피해생존자는 피해사실을 알았던 일로 부정하며 웅크리고 있는 것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피해생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가해자가 성폭력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생존자의 문제제기는 기각되며, 설령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서 가해자가 처벌 받더라도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치유를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성폭력사건을 가해자중심주의로 풀어나가면 안됩니다. 사건을 피해생존자중심주의에 의해 풀어내야 하며 피해생존자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며 피해생존자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피해생존자가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도록, 사건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Illustrated by gwinda Kaczor

학내 사건 해결의 구체적인 절차

1. 피해자가 학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학내 성폭력 상담실과 총학생회와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속이 다른 경우 각각의 단위에서 주체가 참여해야 함.
 -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부 단위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자원을 받아야 함.
 -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신원보호와 주의가 필요하다.

2.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한 경우

- 과/반 학생회는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 비공식적인 방법으로서의 사건 처리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 상담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로 사건 종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가해자가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사건은 상담일자에만 기록으로 남음
- 공식적인 방법으로서의 사건처리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혹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교수, 교직원, 학생위원으로 구성된 성폭력 대책 위원회에 사건 회부
 - 각 사건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짐

※ 학내의 성폭력 상담실은 대리 신고가 가능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신고나 학생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를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학내 기관을 통한 해결은 피해자를 신중하게 보호하고,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가해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어릴 적 누구나 해보았을 술래잡기. 술래를 제외한 사람은 술래에게 잡히지 않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어릴 때 즐겨했던 이 놀이는 대학에 와서 약간 변형되었지만 여전히 인기가 있다. 어린 시절 즐겨했던 술래잡기에서는 가위 바위 보로 술래가 정해졌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가지게 되는 술자리에서는 술을 못 먹거나 먹지 않는 사람이 자동으로 술래가 된다. 그리고는 술래를 피해 모두들 이리저리 흩어진다.

술문화가 곧 대학문화가 된지 이미 오래다. 술을 마셔야만 친해질 수 있고,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종교적 이유든, 다른 개인적인 이유든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반이라는 공동체에서 소외되기 쉽다. 술을 잘 마시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이끄는 몇몇에 의해서 매년 반 행사가 주도되었고, 술래가 된 이들은 쓸쓸히 퇴장해야만 했다. 필자가 새내기일 때도 그러했고, 선배가 되어서도 그러했다. 특히 학기 초에는 열심히 반 행사에 참여하던 후배가 어느 샌가 보이지 않을 때는 참 씁쓸했다. 그 후배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런 말을 했다. "술을 못 마신다고 했더니 음료수를 주기에 술을 강권하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음료수를 기점으로 테이블이 갈리면서 소외되더라고요." 이렇게 행사 뒷풀이 자리에서는 술을 잘 마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 편이 갈린다.

얼마 전 한 여대생의 '루저발언'으로 전국이 들쭉했던 적이 있다. 우리 반도 한때 위너와 루저 가르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위너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루저다. 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승자인 건지 필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당시에 반에서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멀쩡한 사람이 위너로 칭송되었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 위너의 자리는 번번이 남학우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여학우는 통금이 있어서 적당한 시간이 되면 자리를 떠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남학우들이었다. 또한, 여학우가 술을 잘 마시면 품행이 단정치 않은 사람으로 여기고 남학우가 술을 잘 마시면 남자다운 모습이라 추켜세우는 주위의 분위기에 여학우들은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켜냈던 안주가 동이 날수록 줄어드는 안주를 대신하게 되는 것은 여학우들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A양은 예쁘고 B양의 몸매는 끝내주고 C양은 예쁘고 많지만 D양은 별로라는 등의 이야기가 안주를 대신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재미있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불편한 주제일 것이다. 단지 불편함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외모에 관한 이야기는 주제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다. 필자도 학창시절 외모에 관해 상처를 입은 적이 있고,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당당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외모가 콤플렉스로 남아있다. 현재 필자의 눈에 비친 술문화가 보편적인 대학생들의 보편적인 술문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러한 술자리를 한두 번은 겪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적인 대학문화, 건강한 술문화는 어떤 것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선뜻 답해줄 말이 없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글과 같은 술문화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나아가 대안적인 놀이문화를 모두가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고민들과 노력이 모여서 실천으로 이어져 필자가 졸업하기 전 건강한 놀이문화를 경험하게 되길, 그리고 더욱 건강해진 술자리에서 이 글을 읽은 누군가와 함께하게 되길 바란다. ●

교육대 이야기

술 안마시는 사람 술래



Illustrated by hayu-usagi

1학년 2학기가 끝나고, 후배가 들어오고, 나는 선배가 되었다. 새내기 정모가 열리고 나는 후배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 정모에 꼬박꼬박 참가했다. 학내 공동체에서 열리는 정모가 대부분 그렇듯,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정모 역시 술자리에서 벌어졌다.

술자리에서 나는 그다지 환영받는 멋진 선배의 모습이 아니다. 나는 목소리도 작고 술도 못 마시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게 그센스와 카리스마도 없다. 그저 나는 내 옆에 앉은 대역섯 명의 사람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듣고 웃고 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정모에 참가하던 당시 나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왜 목소리가 작을까, 나는 왜 술을 못 마실까, 나는 왜 여러 사람을 휘어잡는 말솜씨가 없을까 등등의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일단 목소리를 크게 내고, 술은 일단 먹는 척만 했다. 대화를 이끌어 나갈 능력은 안 되니까 다른 선배와 함께 앉아서 크게 웃고 반응을 유도하곤 했다. 그리고 간간히 FM도 시키고 그랬다. 그렇게 과격하게 놀았더니 일단 술자리에서는 재밌었다.

그리고 정모를 하면 으레 응원도 했더랬다. 술을 한잔 마시고 나와서 신촌 길바닥에 동그렇게 둘러서서 남자 선배들의 주도 하에 거친 응원전이 펼쳐졌다. 나는 응원을 좋아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았고 크게 소리치는 것도 좋아했다. 그래서 다른 동기들이 벌이는 응원전에 나도 출렁출렁 끼어들었다. 그런데 어쩐지 나는 그 동그런 원의 중앙에서 춤추고 소리 지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만 여자였다. 그 원 안에서 북적대며 신나게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서 나 혼자만 여자였다. 다른 여자 후배들처럼 나도 원을 그리고 암전하 서서 중

앙에서 남자 선배들과 활발한 남자 후배 몇 명이 뛰고 구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깃발을 흔들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응원은!!'이라는 구호를 외칠 수 없었다. 그 구호 한번 외쳐보고 싶었는데 항상 남자들이 외쳤더랬다. 심지어 새내기 남자애도 용감하게 외치던데 왜 나는 그럴 용기가 안 났던가 모르겠다. 그때 응원하는 남자가 해야 진짜고, 여자가 하면 가짜라는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장난삼아 말하던 '남자들의 거친 응원전'에 끼어들 수 없었던 나는 너무나 큰 박탈감을 느꼈다. 거친 응원전에 끼어들지 못하는 나의 작고 마른 몸이 너무 싫어졌다. 여자선배는 나 혼자밖에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나 싶기도 했다. 그런데 동시에 왜 여자가 80%인 생과대에서 지금 여기 서있는 여자선배는 나 혼자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 웬지 아까 술 마실 때는 여자 동기가 몇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어디에 갔는지 궁금했다.

그렇게 몇 번의 정모, OT 뒷풀이를 다녀온 후, 나는 지칠대로 지쳤다. 고작 술자리 몇 번 다녀왔을 뿐인데 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다. 술자리에서 재밌게 놀지 못하는 나 자신, 응원전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의 몸, 이걸 극복해보겠다고 흥내 냈던 과격한 몸짓 모두 부정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소외감이 나를 괴롭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우울했고 마음 한구석이 뻥뻥했다. 그리고 나는 대학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탓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방 안에 넣어놓은 OT/새터 자료집을 발견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읽어봤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나는 엉엉 울었다. 내가 느꼈던 소외감은 나 혼자 느낀 게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다른 모습을 흉내 내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여학우가 나와 같은 고민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수많은 여학우가 나처럼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서러웠다. 이 상황이 너무나 슬펐다.

그렇지만 기뻐다. 누군가가 나를 긍정해주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었다. 상처받은 나를 그녀들의 언어가 따스하게 감싸안아주었다. 항상 부정했었던 나의 모습을 그녀들은 긍정해주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그날 눈에서 눈물은 평평 흘렀지만 어느 때보다 가슴이 꽉 찬 기분이었다. ●

생과대 이야기

by_랄래



Illustrated by halogaron

생명대 이야기

나를 붙잡아 주었던 대학 내 자치규약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학교를 늦게 들어온 편이었다. 사실 안암동에 있는 학교는 친구들이 많아서 모두 다 자기 학교로 오라고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그 학교는 학번제이고 우리학교는 나이제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만약 내가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주저하지 않고 나이제라는 우리학교에 지원했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고 반을 배정받고 OT에서 들은 이야기는 "우리 반은 학번제입니다"라는 이야기였고, 나는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기껏 학번제를 피해서 온 학교인데 하필이면 학번제 반에 걸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사실 스무 해가 넘는 삶을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보다 한살이라도 많은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썼었고 한살이라도 작은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한테 반말을 할 것이라는 것은 적응이 잘 안 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유쾌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행인 것은 우리 반 내에서 OT 교사 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새내기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월 한달 간은 학번제이지만 상호존중의 차원에서 나이가 많은 작든, 학년이 높은 낮은 서로서로 존댓말을 쓰는 기간이 있었다. 그러한 자치규약 덕분에 나는 무사히 3월을 지냈고, 4월이 되자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동생들이 반말을 쓰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며 반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다.

사실 3월 한달 동안 서로 존댓말을 쓰면서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정말 반 행사를 때려치우고 아웃사이더로 지내버릴까 하는 마음도 들었으며, 친구에게 정말 서럽다고 하소연도 많이 했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러한 자치규약이 없었더라면 나는 반을 때려치울까 했던 생각들을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행했을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1년 후, 최근에 나는 다른 반 친구들과 자치규약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이리이러한 자치규약을 덕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반에서 이탈하는 일은 없었노라고 이야기하며 그 반의 자치규약은 어떤 것이 있으며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기대하던 대답과는 달리 그 친구는 자기 반에는 그러한 자치규약이 없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다는 답변만이 있었다. 반 문화와 과 문화는 각각의 특성이 존재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같은 단과대 내에서 어떤 반은 자치규약이 있는 반면 또다른 어떤 반은 자치규약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뭔가 더 좋은 자치규약을 얻어오려고 했던 나의 계획은 빗나갔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그 반의 자치규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친구에게 이런저런 자료들을 넘겨주었다.

처음에 그 친구가 자기 반 회장님에게 "다른 반은 이리이러한 자치규약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은 하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했다. 이러한 자치규약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왜 우리가 이런걸 만들어야 하나?"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한다. 아마도 아직 그러한 자치규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치규약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만 돌아왔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자치규약이 얼마나 나에게 큰 역할을 해 주었으며, 공동체에서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었던 규약을 다른 반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글자로 하여 한 30분 정도를 다른 반 회장님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이러한 자치규약은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금지하여 불편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반 회장님들에게 이야기 할 기회는 있었지만 실제로 자치규약을 만들지 아닐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내 친구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의 반응처럼 회장님이 아직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지도 모르고, 반 회장님은 그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여도 내부 구성원들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와 친구의 발언이 고요한 호수에 작은 파문이 되어 멀리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자치규약의 필요성을 깨닫고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불편함을 덜 느끼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 생활을 1년 지낸 09학번입니다. 저는 남자의 비율이 매우 매우 높은 공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하루 종일 같은 반에서 모두 같이 지내면서 서로 많이 보고 대화하기 때문에 모두 서로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문과에 비해서 여자의 비율이 적어도 별다른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오고 여자가 별로 없는 공대에 들어오면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는 고등학교 때는 없었던 총여학생회 같은 것도 있고, 남자에 비해서 매우 적은 비율의 여학생 수도 그렇고, 고등학교 수업과는 다른 수업 방식 때문에도 그럴 것일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우리 반의 여학우들을 보면서 느낀 아쉬운 점과 불편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의 여학우들이 반 활동에 잘 적응을 못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챙겨주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09학번의 여학우의 수가 너무 적다 보니 과방에서 잘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친구들에게 과방 와서 좀 친해지자고 했지만, 와서도 잘 친해지지 못하고, 약간 내외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서로 그냥 수업 시간이나 밖에 서 만나면 재밌게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데, 과방만 오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정말 아쉽고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여자라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남자라서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낌은 딱 무엇이라 말 할 수는 없지만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느낀 점들이 있는데, 제일 고치고 싶은 것은 여학우들이 과방에 와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함께 재밌게 놀고 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



Illustrated by Jerry Kim

공대 이야기 I

아쉬운 공대남 이야기

저는 약필입니다. 글씨를 보통 못 쓴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약필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고쳐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번 습관이 된 필체라는 건 생각보다 쉬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더욱이 대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빠르게 진행하시는 교수님의 말을 필기하기 위해 글씨는 더 심하게 날아다니게 되고 열심히 한 필기는 오직 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은 정말 열심히 듣고 필기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약필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열심히 필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 필기를 빌려달라고 하곤 하죠. 물론 제 글씨를 보고는 도저히 해석을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반납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요.

공대 이야기 II

여자 글씨, 그게 먹는 건가요?



Illustrated by Jerry Kim

그 날도 어느 때와 같이 저는 열심히 필기를 했고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기 남학생이 와서는 이번 시간에 좋았다고 필기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업도 안 듣고 졸았으면서 필기를 빌려달라는 것이 조금 알갑긴 했지만 그래도 거절할 수 없어 필기를 내 놓았는데 갑자기 그 남학생 표정이 짙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정색하고 하는 말이 '여자가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냐.' 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워낙 예전부터 글씨를 못 쓰는 편이라 그런 소리를 전혀 안 들어 본 건 아니었지만 필기를 빌려달라고 할 때와는 썩 다른 표정으로 오히려 정색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자에 글씨가 뭐 그러냐.' 부터 시작해서 '여자에면 글씨도 깔끔하게 쓰고, 필기도 여러 색깔 펜을 골고루 써가면서 예쁘게 필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찌구저찌구.' 저를 앞에 두고 난데없이 여성의 글씨와 필기에 대한 일장연설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보통 사회의 통념으로 여자들은 글씨도 예쁘게 쓰고 이것저것 예쁘게 꾸미는 것을 원하겠지만 여자는 꼭 그래야 하는 겁니까? 여자에도 글씨를 못 쓸 수도 있고, 미적 감각이 제로여서 예쁘게 꾸미는 것도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정색을 하고 '여자가~' 이러면서 구박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막말로 필기도 빌려보는 주제에!!

억울해서 글씨를 고치고 만다! 생각하다가도 그 생각 끝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 남자에 글씨가 따로 있고 여자에 글씨가 따로 있는 겁니까? 남자가 글씨를 못 쓰면 그냥 '남자에 글씨네' 그리고 말면서 왜 여자가 글씨를 못 쓰면 '여자가 이리하면 쓰냐~' 부터 시작해서 '여자는 이래야 돼~' 라고 이어지는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약필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약필을 고치려는 그 수고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여자라서' 약필이면 안 된다는 소리 때문에 고치는 건 별로 탐탁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러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뼈저리게 느낀다면 그때는 정말 약필을 고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여성답게 보이기 위해 약필을 고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

자치(自治)란 인간이 만들어 낸 단어 중 가장 위대한 단어라고 했다. 그리고 공동체 학교 때,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심정적으로나마 동의, 그리고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소박하지만 또 감히 내가 꿈을 꾸면서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치(自治)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공동체 구성원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저런 차이점을 줄이면서 즐겁게 하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빠'들이 많았고, 오빠들에게 그런 차이점과 불편의 지점을 드러내자 나는 꽤나 '예민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늘 논리를 강요받았다. 내 논리는 완벽해야 했고 그것을 설명하지 못

할 때 나는 그저 '오버하는' 애가 되었다. 그들의 '기본 나쁜', '불편함'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었지만 나의 그러한 감정들은 늘 촌스러운 논리를 수반해야 했다. 감정적으로나마 나를 이해해주겠지 하던 동성친구들 역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드러냈고, 나는 그렇게 서글픔을 느끼며 공동체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다. 학생회 활동을 하며 내게 있어서 그것은 엄청난 괴리를 가져왔다. 당연히 분노할 것에 대해 분노하는 내 모습은 점점 '평범한' 사람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내가 학생회 활동을 하는 이유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함이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 공동체에 자신있게 말해 더 나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과 소통하려 할수록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상처와 냉담한 시선뿐이었고 그럴수록 절망감이 깊어졌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여성주의적 감수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겪는 것이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해준 것은 '공유'와 '공감'을 선사한 여러 친구들과 책이었다. 생각해 보면 나는 꽤나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었고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졌다. 사실 여성주의라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많은 여성들이 배제된다. 여성 사이에서도 수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이를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묶어낼 필요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여성 등, 젠더의 다름으로 수반되는 차이의 정치는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투쟁과 갈등이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배제하지 않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등등. 인간관계에서 '다양'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맺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이 아닌 관계의 윤리가 필요한데 그러한 방식과 그로 인해 구현되는 모든 것이 여성주의라 생각한다. 흔히들 여성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한다. 그렇다. 정치적이다. 근데 정치적인 것이 나쁜 것인가. 우리는 일평생 정치를 하며 살아간다. 일상의 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자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나는 공동체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제 1의 가치가 여성주의이며 지금도 부단히 이야기하고 있다. 좀 더 유연하게 말이다. 비록 조금은 외롭고 슬플지라도 나의 모습에서 변화를 느끼는 친구들을 보면 살맛난다. 다른 학교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그랬다. "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 맨날 비추(비추천)와 신고야, 난 비추(비추천)와 신고를 먹고 살아." 속이 상하겠지만 어찌겠는가, 맘속으로나마 추천을 눌러주는 1인을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소통하려 애쓴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나아지길 감히 꿈꾸며 글을 마친다. ●

사회대 이야기

자치와 여성주의

by 행정학과 디디



행

정학과 학생회는 여연자연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여 제 4차 행정학과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 후, 만장일치로 여연자연과 함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학생회가 구성원을 배제하지 않고 소외됨이 없이 모두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자 역할이라면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여연자연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여성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권력, 학년권력으로 얼룩진 공동체문화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성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학제적 혹은 성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행정학과는 여학생 비율이 40%입니다. 아시다시피 더 이상 여성은 '소수'가 아니지만 여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연회관의 경우 2009년 여름까지 여자화장실은 2개인 반면 남자화장실은 4개나 되었습니다. 사회과학대 신입생 성비가 5:5임을 감안할 때 이는 비율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문제제기하고 이뤄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공동체문화가 밤샘 술자리와 PC방으로 이어지는 남성공동체중심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에 문제제기를 하면 '여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과도하게 예민한 사람이 되고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길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행정학과 학생회는 문제제기의 통로이자 학생회 스스로 구성원들에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정학과 공동체 내에서 물리적인 성폭력 문제, 성폭력 발언이 수면 위로 드러날 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더욱 많은 담론을 수용하고 구성원들 서로 간 치열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누가 그랬냐'가 아니라 '왜 그럴까'라는 물음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오티와 새터기간에만 '자제하는', '숨기는' 것으로 이어지는 여성주의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 속에서 말랑말랑하게 깔리길, 그리고 그런 고민의 지점들과 갈등에 대해서 '북 까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갑시다! ●

행정학과 학생회 이야기

선배되기 학교



문과대 자치규약 이야기 I

과반
공동체에서의
페미니즘

by_ 문과대 유미



Illustrated by Isabelle Azevedo

문과대는 페미니즘이 <강하다>는 말

선배들로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으며, '반'이라는 공동체에 어하하는 한 학년에 한두 명 이상 남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때마다 매우 놀라게 된다. 복학해서 몇 년 만에 새터에 와 '야, 예쁜 새내기들 좀 데려와 봐.'라고 말하는 남자 선배를 보면서, 정말 그때의 문화와 감수성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닫는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십 년 전의 대학으로 돌아갔을 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학 내에 '페미니즘'이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과 많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이런 말을 듣기가 쉽다. '페미니즘이 과거에 필요했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솔직히 지금은 불필요한 것 같다. 역차별 아니냐.', 혹은 '지금의 문과대는 페미니즘이 너무 <강하다>.' 하는 이야기들. 이와 동시에 학내에서 과거에 페미니즘이 '제도화' 시켰던 많은 것들의 의미는 너무나 빠르게 희석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2007년 연세대학교의 WOW총학생회가 '총여학생회 폐지'를 가장 큰 이슈로 만들며 학생회칙 개정안을 내놓았던 것부터 작년 연세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한 선본이 '남성인권보장위원회'라는 선포적인 인기를 끌었던 개그프로그램을 인용하며 '남학우 휴게실 신설'을 공약으로 띄웠던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한 시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실제로 지금의 대학사회에서는 과거에 총여학생회가, 여학우 휴게실이 만들어졌던 맥락이 거의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공동체 안에서 그런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혹은 역량) 없게 되면서, 기층 단위에서 갖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들은 더욱 커져만 간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의 성과로 '제도화'만을 말하는 것은 큰 한계를 지닌다. 운동의 맥락이 공유되지 않은 채 어떤 '제도'로 표상되었을 때, 그것은 곧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성과들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반경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제도화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사고해야 하는 것은 가장 아래로부터 계속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와 논쟁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드는 것이다.

과/반공동체란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반 내에 (특히 새내기들에게)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과 몰이해가 존재하는 것은 이상한 일. 화낼 일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서 페미니즘이 <강하다>, <만족스럽다>

>, <충분하다>라는 상황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페미니즘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도처에 존재하는 '객관성', '정상성'들이 결코 객관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일종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안에서 우리끼리 논의의 하에 규약을 만들어 지킨다고 해도 그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조건들이 여전히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반 공동체란 매년 4~5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며,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고 해도 공동체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만큼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그 안에서 페미니즘의 의미, 맥락이 공유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매년, 아니 매 시기마다 새로이 페미니즘을 이야기해야만 한다. 물론 다른 단대에 비해, 다른 과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되는 편'일 수는 있겠지만, 그 평가가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동체의 <대안 윤리>로서의 페미니즘

페미니즘을 떠올릴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중 하나는 그것이 '성폭력 사건'을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많은 반에서 페미니즘이란 곧 새터나 대동제, 농활 등의 큰 행사 때에 (그것도 이미 정해져서 전달되어 내려오는)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읽고 공유하는 것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지금의 상황에 맞는 변화도 없이 페미니즘을 '규약(일종의 강제)'로 받아들이게 할 때, 그 한계는 이후 반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². 또한 이러한 접근은 페미니즘을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피해자'의 구도로



Illustrated by Isabelle Azevedo

가져가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인식되게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여성을 '피해자', '약자', 그리하여 보호받고 시혜를 받아야 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등의 많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페미니즘을 '능력' 있고, 이기적이고, 허영심 강한, 남성을 이용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려는 무서운 여성'의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빈번하다³. 이러한 이미지는 미디어에 자꾸만

등장하는 '여성 상위 시대 도래', '알파걸, 베타보이' 등의 담론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된장녀에 대한 전사회적인 질타도 비슷한 맥락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페미니즘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유한 여성', '성공한 여성 리더' 이미지와 중첩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지어는 페미니즘 역시도 그러한 조류에 편승하여 여성의 리더십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에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시키기도 한다. 더 많은 이들의 해방을 위해 존재했던 이데올로기가, 이제는 '능력 있는 여성 개인의 성공'을 돕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⁴. 이러한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페미니즘이 표상하는 이미지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충분히 <강>

1 그런 의문들은 종종 '왜 남학우 휴게실은 없어요?', '그럼 남학우 환영회도 할래요?', '저는 FM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안 돼요?'하는 방식으로 터져 나온다. 이 때 별 논의 없이 그 재인을 수용하거나, 반대로 의문을 던진 사람을 몰상식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의문이며, 거기서부터 반 내에서의 페미니즘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논쟁을 '풀어' 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2 예를 들면 '너 그러다 총여에 신고 당한다. 걸려서 잡혀간다' 등의 무스것소리 또는 반의 공식적 행사가 아니라 조금 더 비형식적인 소규모 모임에서는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그 규약의 내용을 캐트리어 친목(?)을 도모하게 되는 것 등으로 드러나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들이 있었다.

3 이것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반성폭력 운동이 여성을 '피해자화'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 여성이 '피해자' 혹은 '약자'의 이미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양한 면모를 보았을 때 그것을 설명해내지 못하여, 페미니즘에 대한 반경향이 심화되는 것이다.

4 현재 거의 모든 주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 커리어센터'가 바로 그런 경향을 잘 보여준다.



하다'라는 평가를 만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현실 속 여성들이 처해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나는 페미니즘이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보편성을 발굴해 내는 일종의 '대안 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게는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상황이 불편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성찰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란, 누군가 '불편함'을 이야기 했을 때 '난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지 않는 것. 그 말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제시하며 객관성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대체 어쩌자는 거냐?"하고 성급하게 대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우선 '상대의 불편함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렇게 귀를 기울여 불편함을 인지했다면, 우리는 이제 기존의 공동체가 지켜온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방식을 절대화하지 않고,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면) 어떻게 더 많은 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관계 맺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가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페미니즘은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말하지 못하던 것을 말할 수 있게 한다.

물론 페미니즘 자체가 반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면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담론이 바로 '페미니즘'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반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페미니즘을 사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것이 '젠더' 또는 '섹슈얼리티'의 측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와 공동체에 필요한 '대안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반공동체 돌아보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연세대의 반공동체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 보자. 먼저, 공동체를 보았을 때 대표자가 남학우인 경우가 많다.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각 반의 상황에 따라 여러 이유가 있었을 테고, 대표자가 되는 데에 성별 이외의 조건들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지만, 문과대의 성비에 여학우가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의아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어쩌서 반회장은 항상 남학우가 많은 것일까? 이런 경향이 매년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 그리고 여성 대표자를 했던 이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어려움들'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결과는 아니다.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는 남학우들이 살아남고, 대표자가 되기에 훨씬 더 유리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반 공동체에 사람을 모으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반의 문화라는 것 역시 점점 더 협소해 지게 되었다. 다른 공간과 구별되는 대학만의 '대안 문화'로 존재하던 것들이 점차 소실되어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은 술, 응원, 스포츠 소모임, 게임 등이 되어버렸다. 물론 이전의 대안 문화들(운동회, 노래패, 사회과학 학회, 문학 학회, 철학 학회 등등)이 그 자체로 페미니즘적이었던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운영에 있어서 여학우들에게 배타적이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러한 다양한 문화들, 시도들이 사라지고 반에 남아있는 것이 '새로운 것', '더 많은 학우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여학우들에게는 술, 응원, 스포츠, PC방에서의 밤샘 게임 등에 함께 하는 데에 어려운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집에서의 통금 시간일 수도 있고,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 돌아

다니거나 외박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수군거림일 수도 있다. 혹은 익숙하지 않은 술자리 문화에서 느끼는 거부감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고학번 남자 선배와, 남자 후배들 사이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유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속에서, 여학우들은 단지가벼운 '놀림거리'나 '들러리'가 되어 앉아있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하지만 반 학우들의 모임의 양상이 대부분 밤늦은 술자리로 수렴되는데, 그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보의 공유나, 친목에서부터 자연스레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와 동시에, 반에서 살아남는(?) 여학우들이 곧 '남자'로 취급되는 것 역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⁵. 어쩌면 그건 반의 문화가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남성성'을 강요하며, 여성에게 얼마나 배타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동시에 여성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떡해야 하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때 그녀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과/반 공동체 안에는, 새내기 여학우들이 입학하자마자 연애의 대상으로 저울질 되는 것, 반방에 드나들 때에 오늘 화장을 하지 않았단가, 요즘 살이 췌 것 같단가 하는 타인의 평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야 하는 것, 함께 반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별 분업을 하게 되는 것 등등... 그리고 아직 언어화 되지 못한 수많은 '불편함'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을 이 글에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상황들로부터 누군가는 (왜인지 명료하게 표현해 낼 수는 없는)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며, 혹은 어떤 특정한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5 그 여학우의 말이나 모습, 행동에 대한 '남자다/남자답다'하는 감탄사나 남성적 호칭,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웃음이 대표적인 양상이다.

반 학우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맺음을 고민하자

사실 지금껏 익숙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관계맺음'을 고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 그러한 시도에 너무나 서툴다. 하지만 지금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력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나 '상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

문과대 공동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당장 새내기들이 이전에 동기들, 선배들부터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엔 페미니즘이 결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동체의 '대안 윤리'로서의 페미니즘을, 더 열심히 이야기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과반공동체 내의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정하기 위한 논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10학년 새내기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앞으로 일 년 동안 과반공동체 안에서 페미니즘을 어떻게 논의해 가고, 내용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사람들로부터 2010년, 페미니즘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하는, 생동하는 자치단위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1 여성 대표자와 남성 대표자의 역할이 알게 모르게 분리되고 있진 않나요? 여성이 대표자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 2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페미니즘을 공동체 원리로 안착시키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럼 이제 자치규약의 초벌적인 안을 잡아볼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규와 함께
그 내규가 필요한 상황 또는 필요한 이유도 함께 말해봅시다.

문과대 공동체를 위한 자치규약 / 초안

01 여성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남성 중심적이지 않는 술자리문화, 반문화를 만들시다

여학생들에게는 밤늦은 술자리, 응원, 스포츠, PC방에서의 밤샘 게임 등에 함께 하는 데에 어려운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집에서의 통금일 수도 있고,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 돌아다니거나 외박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수군거림일 수도 있습니다. 술을 잘 못 마시는 학우일 경우에는, 친목이 술자리를 통해 다져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 하에서 술이 강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여기서 강권은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술을 거부하였을 때 분위기가 싸해진다거나 인상을 쓴다거나 하는 간접적인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또한 대부분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의 양상이 밤늦은 술자리로 수렴되는 반/과 문화에서, 그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보의 공유나 친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남성대표자가 술 잘먹고, 큰 목소리로 분위기를 주도하며 대표성을 획득할 때 여성대표자는 그만큼의 대표성을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학우가 더 많은 문과대에서 여성 대표자가 오히려 적었던 지금까지의 현실, 공동체에서 이말하는 여학우가 남학우보다 더 많은 것 등의 문제를 개인의 성격 문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동체의 문화가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02 이성애 중심(남녀만이 연애포개라는 인식)적 발언이나 행동을 조심합시다

우리는 유독 남녀가 별치에 걸릴 때에 '잘 됐으면 좋겠다, 사귀어라' 등으로 쉽게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또는 남남이나 여여가 러브샷을 하거나(소위 '변태샷'이라고 불리는) 별치에 걸리거나 할 때의 '사귀어라'라는 말은 남녀가 별치할 때와는 달리, 동성애를 희화화하고 웃음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술자리에서 즐겁다는 이유로 몰아가는 이 분위기가 사실은 이성 간의 연애포개만이 지극히 정상적이며 그 외의 다른 관계맺음은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동성애를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의 사랑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과 행동들은 공동체 내의 동성애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가능한 다양한 관계맺음을 모두 재단해버리지 않는지 되돌아봅시다.

03 자치규약을 웃음거리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합시다

과/반에서 문제될 만한 언행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잡혀가나?' 하고 우리가 논의한 자치규약을 농담 주제로 던지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규를 희화화하게 되면 정작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규에 근거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내규는 함께 정한 공동체를 위한 약속이므로 희화화하지 않도록 합시다.

04 고정된 성 역할을 지양 합시다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성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에서 여성/남성적인 것을 계속 교육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남자가 들고 요리는 여자들이 해라'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아도, 사실 MT 같은 곳에서 일이 분배되는 것을 보면 성별분업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사노동이나 감정노동(누군가를 보살피고 챙기고 상담하는 등)이 여성들에게 많이 전가되기도 합니다. 혹자는 '성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가 결코 효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언급했듯 그 과정에서 노동의 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성주의는 남/녀의 차이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성주의를 말하는 것은 성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신체적 조건 등이 차

이가 나는 상황에서,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40kg 옮겨놔'라고 말하는 것은 불평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차를 인정하되, 그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FM은 되도록이면 하지 맙시다 / AM은 하지 맙시다

FM을 하는 것 역시,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래?'라는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FM을 권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FM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학우들이 분명 있으며, 필연적으로 'FM을 잘 하는, 좋아하는 사람 / FM을 못 하는, 싫어하는 사람'의 구도로 학우들이 나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할은 전자는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공동체 내에서 꼭 필요하고 주목받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반면 후자는 '분위기를 가라앉게 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가르는, 1번에서 언급했듯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술자리 문화를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AM은 AM을 하는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게 됩니다. 여성이 자신을 소개할 때, 굳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섹시한 여성'의 이미지로 자기소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분위기를 띄운다는 이유로 그러한 소개를 강요(또는 유도)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나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 불편할 수 있으므로 AM은 지양하도록 합시다.

06 모든 학우에게는 외모 등 신체적 특징으로 평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조심합시다

공동체 안에서, 특히 여학우들은 연애포개로 저울질 된다던가, 반/과방에 드나들 때에 오늘 화장을 하지 않았단가 요즘 살이 췌 것 같단가 하는 타인의 평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학우들은 동등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성적으로 대상화됩니다.

공동체 내의 동등하고 원만한 관계맺음을 위해 신체적 특징으로 평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조심하도록 합시다. 아울러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행동,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07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 사람만 예민하다는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시다

(위에서 이야기한)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냐, 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유와 상황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 보다는 문제제기 자체를 물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단순히 '해서 안되는 일들'을 나열해놓고, 폭력적인 언행을 한 가해자와 상처를 받는 피해자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과대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지켜나갈 자치규약을 끊임없이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페미니즘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사소하고 귀찮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8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맞는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표자들(혹은 여성주체)이 피해자와 함께 빠르게 사건해결에 나설 수 있게끔 하고,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2차 가해란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언급하고 다니거나,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황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문과대 학생회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 학번/나이/성별에 따른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후배 구성원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합시다

학번, 나이, 성별이 공동체 내에서 알게 모르게 권력 행사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번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임을 알고 서로를 존중합시다. 어떤 반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존댓말을 쓰자는 조항을 내규에 포함시켰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과대 자치규약 이야기 III

자치규약 제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난점 벗어나기!

00 들어가며

문과대의 많은 단위들에서는 이번 겨울방학동안 자치규약 제정을 고민해왔지만, 진정으로 여/남이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규약 '제정' 자체만을 넘어서서 더 높은 목표를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규약 제정 '반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그 해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만 증폭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치규약을 제정할 때에는, 이것을 제정하는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규약 제정은 공동체에서 여성주의를 이야기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이죠.

01 자치규약의 성과, 그리고 자치규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대학가에 반성폭력 운동이 시작되면서, 공동체 내의 성폭력 사건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내의 총격과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학내에 반성폭력 학칙/자치규약 제정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대책위 모델(대책위 설립, 가해자의 사과 자보, 가해자 재교육의 순서를 밟는)이 정착되고 자치규약을 만들고 강조하고 동의 받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가해자 처벌'만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고, 규약이 그 제정만으로도 공동체에 많은 안도감과 면죄의식('우리 단위는 규약이 있으니 괜찮아/성평등해'라는 식의)을 주었고,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치규약제정을 주 내용으로 한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의 의미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은폐되었던 성폭력에 이름을 붙이고 드러나게 하는 작업이었지만, 규약 제정으로 수렴되면서 여성의 권리를 제기하고 구조에 문제제기를 하는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02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앞서 말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성적 결정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전자는 평등한 개인을 전제하지만, 성별이 위계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동등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동등하게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조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성폭력이 없는 상황'만을 지향하면서 개인 사이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머무는 반성폭력 운동이 아니라, 여성에게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대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별 권력 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구조 안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권력의 우위에 있는 자의 '결정권'으로 대체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남성인 이상, 약자인 여성의 YES/NO가 YES로, NO로 있는 그대로 해석되지 않고, 여성의 침묵이 무언의 '동의'로 읽히기는 등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되게 됩니다.(이는 성폭력적 상황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위계화된 성별 구조와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개인이라고 전제하게 되면 '왜 남성만 가해자가 되냐,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모

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남성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겪을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말하는 것이 그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주목해야 하고,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느냐'입니다.

반성폭력 운동이란, '모두가 다양하게 느끼는 성적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 성폭력은 sexual violence(성적 폭력)가 아닌, violence against women(여성에 대한 폭력)인 것입니다. 뒤의 개념은 구조적 폭력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해고까지 하는 구조적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노동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여성이 '여성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페미니즘을 통해 진정한 여성권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권력구조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이 필요한 것입니다.

03 '모두에게 행복하고 편안한 자치규약' 모두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자치규약!

맨 처음 자치규약을 만들고 페미니즘을 말할 때, "왜 남녀평등을 위한 거라면 '여성주의'라고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최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여성 남성 상관없

이 모두가 상처받고 평등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주의가 있는 거야"라고 상냥하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선택했던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웃을 수 있기 위해 자치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는 것이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시민'이 아니었던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신장하기 위해 '성폭력'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며, 그것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자치규약'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내규를 처음 접하는 새내기들이 단번에 내규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공감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다만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그 자체를 페미니즘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과 여가 평등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이 있는거야"라고 설명하게 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구조가 어떻게 여성에게 억압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성에 대한 억압을 없애기 위한 페미니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규가 '결국 그냥 모두가 평등해져서 웃으면서 잘해보자'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내에서의 토론과 논의는 중요하지만) 반성폭력 내규 토론이 공동체 안에서 잘 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내규에 걸리지 않게' 행동하는 것만 가지고 페미니즘을 놓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없을 때에도 반성폭력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공동체의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나아가며

이 글을 통해서 과/반 공동체에서 자치규약을 제정하며 토론해왔던 사람들의 고민이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규약 제정만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에 힘든 공동체의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내규만 있으면 여성주의적으로 문제 없는 공동체'라는 환상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들을 지나치게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의 두 글을 읽으며 '내규? 그건 우리과/반엔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고민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과, 반,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 중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배, 동기들과 함께 있는 자리이고 다들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괜히 내가 분위기를 깨는 것은 아닐까?', '내가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슬며시 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느낀 불편함과 불편함, 그리고 이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불편한 상황에 대한 의사표현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사건에 대한 지원, 상담을 받고 싶다면 학내 성폭력상담실이나 총여학생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총여학생회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speak-out@yonsei.ac.kr / 02) 2123-3645
- 교내 성폭력상담실 (학생회관 2층 오른쪽 끝)
helper@yonsei.ac.kr / 02) 2123-2118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쪽지를 보내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을 신고하고 싶다면 <사이버 명예훼손본정조정부> <http://www.bj.or.kr> 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발생시간과 해당 URL 및 가해자 ID, 캡처 화면이나 갈무리한 채팅 내용 등을 가지고서 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방문, 게시판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폭력(강간, 강간치상)을 당했을 때

물리적인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당황함과 불쾌함에 샤워를 하거나 증거물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이 순간이 너무 괴롭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눈앞에 사라지길 바라더라도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 및 증언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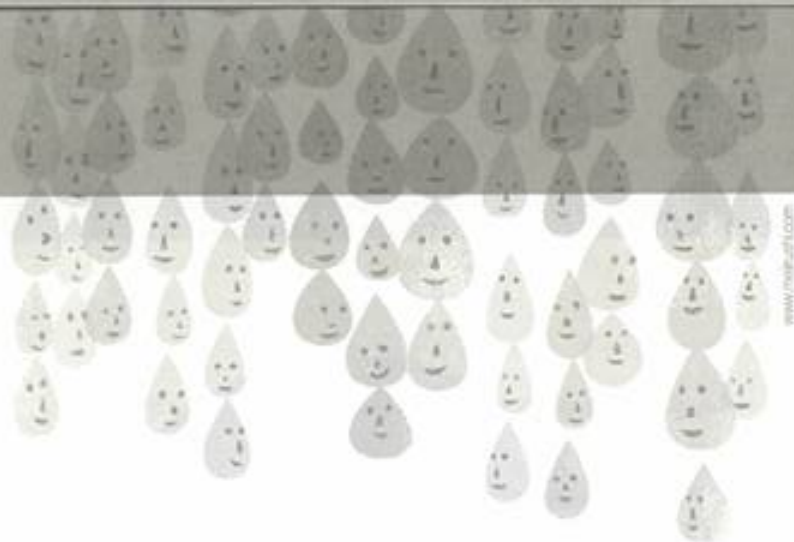
- 사건 직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곧바로 병원이나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발견되는 피나 정액을 증거로 확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단서도 꼭 끊어두세요.
-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가해가 있었던 현장은 그대로 보존하고, 가해자가 떨어뜨린 물건이 있다면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종이가방이나 지퍼백에 넣어둡니다.

2.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원하신다면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연락하세요.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02) 338-5801~2 / ksvrc@sisters.or.kr
-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02) 739-8858 / minwoo@womenlink.or.kr

- 여자경찰관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시에는 기록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성폭력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를 소개합니다!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여연자연)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연성뿌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연자연 모임은 공동체가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면서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혹은 감추어져 있었던 불편과 고민의 지점들을 드러내고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체 내부의 권력구조를 성찰해 나가고, 학내 여학생 교육권의 확보, 반성폭력 운동 등 여성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합니다.

여연자연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수련회를 준비하며 자치규약을 중심으로 반성폭력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여연자연 테이블에 모인 이들이 느꼈던 자치단위에서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자치규약의 의의를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자치규약을 공동체 내에서 잘 지켜갈 수 있을지 고민해나가는 과정으로 겨울방학을 지내왔습니다.

반성폭력 주간 행사를 함께 개최할 수도 있고, 나아가 성폭력 상담실 인력 확충과 반성폭력 학칙 개정 문제와 같은 중요한 일들을 함께 고민하여 제안하고 이야기해나갈 수 있습니다. 성평등한 대동제를 위하여 목소리를 모아볼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과대 여학생 휴게실의 의미를 담론화 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문제를 함께 담보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하신 분들,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이야기가 많아요.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

싸이월드커뮤니티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http://yeoyeon.cyworld.com>